



아래의 글은 전체교회 월간칼럼에 실린 미국 장로교(PCUSA) 총회 서기 Grady Parsons 목사님의 글입니다.

연약한 작은 불꽃 하나

2009 년 10 월

지난 달 한 주일 중에 저는 저의 목사 멤버십이 등록되어 있는 홀스톤 노회의 초청을 받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력에 따르다 보니 본문이 마가 복음 7:24-37 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로에 사는 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는 사건과 그리고 시돈에 사는 한 귀 먹은 사람을 고치는 일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는, 저는 다른 사람이 주로 하는 방법을 통하여 설교를 하곤 하였습니다-예수님이 왜 그 여인을 그렇게도 거처시게 대하셨는가 하는 일을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난 달에 설교를 할 때에는 저의 마음이 그 방향으로 저를 인도하지를 앓았습니다. 제가 그 본문을 연구하여 보았을 때에, 그 본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별 소용이 되지 못하고, 남은 것과 같은 것을 가지고도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위하여 그것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여 보라는 본문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설교 제목을 "부스러기들과 침"이라는 제목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만남에서, 그 여인의 딸이 병으로부터 신속하게 고침을 받게 한 것은 바로 부스러기라도 받을 자세가 되어있는 그녀의 자원하는 의지였습니다. 종교 개혁가인 존 칼빈은 그녀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녀의 믿음의 위대함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교리의 연약한 불꽃과도 같은 것의 도움만을 가지고서, 그녀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해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하늘의 능력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그녀는 엄청난 저항을 견디어 내면서 그녀의 길을 꾸준하게 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는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한 마디를 할 때에도 신학의 모든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틀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과 혀에 느리고 더딘 우리는 하나님과 논쟁하는 현대에 살고 있는 모세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 사람들은 우리가 말에 능숙하고 신학적으로 풍부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능한 모든 해답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기독교인들의 삶의 희미한 모습이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로운 마음과 듣는 자세가 조금이라도 보여 지는 자세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어렵פות이 보여지는 모습과 가능성을 보여 주는 암시가 믿음의 작은 불꽃 하나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